

MEG 재생 공정 패키지 설계 능력 자립화 및
국산화에 관한 연구

김태훈[†], 서유탉¹, 박명철², 임보섭³, 임재호⁴

삼성중공업; ¹서울대학교; ²DSME; ³TPT; ⁴선보공업

(kth322un.kim@samsung.com[†])

저유가, 에너지 다변화로 해양 생산제품의 다변화가 요구되며, 환경 규제 강화, 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성능 차별화, 기술 선점 및 투자 경제성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설계/제조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및 기술 융복합화, 스마트화가 확산되고 이를 통한 시장지배력을 강화,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미국 發 셰일 붐이 전세계로 확산되어 관련 기자재 장비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되며, 천연가스 수출입 터미널 프로젝트 추진 등 셰일 가스로 인한 교역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기술혁신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은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시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고전하고 있다. 당사는 공주대 천안 캠퍼스에 해양 Pilot 설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신사업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Pilot 설비를 이용한 연구활동(Scale up)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혁신역량 확보로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플랜트 Pilot 설비의 운영을 통하여 확보된 Engineering data는 FEED에서 Commission까지 전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